여기 사람이 있다 5호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02-795-1444
2009.2.21

이제 저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자!
살인정부 물러나라!

용산 참사 이후, 참혹한 기억 속에 멈춰진 우리의 한 달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가족은 슬픔과 원한 속에 멈춰진 한 달의 시간을 보냈으며, 집 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목격한 시민들은 공포와 분노 속에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 외쳤습니다. "살인경찰 구속하라!", "살인정부 퇴진하라!", "철거민을 살려내라!"

곧장 얼음장이 되어 꽂히던 물대포와 지옥 불 같은 화염 속에서 죽어간 우리의 열사들은 그 공포와 고통, 원한 그대로를 간직한 채 모든 삶의 시간을 마감하였습니다. 살기 위해 올라간 망루, 지옥 불에 휩싸인 참혹한 망루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멈춰진 채 남아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가진 자를 위해서라면 국민을 때려죽이고 얼려죽이고 태워 죽이는 학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참담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은폐, 조작, 기만은 계속되었다

우리가 분노와 추모의 한 달을 보내는 동안 저들은 온갖 기만과 은폐, 조작을 위한 바쁜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무려 27명의 검사가 동원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살인진압 책임자 무죄, 살인진압 희생자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검찰은 과잉진압이 불러온 참사의 책임을 밝혀지지도 않은 '화염병' 탓으로 돌렸고, 용역깡패와 합작한 살인진압 과정을 '작전상 실수'라는 말로 포장했으며, 사건의 은폐, 조작을 위해 유족 동의도 없는 황급한 부검을 자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날조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데 골몰해 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 철거민을 도심테러집단, 자해공갈단, 알카에다로 칭하는 망발을 퍼부었고 청와대는 연쇄살인범을 홍보대사로 삼아 여론조작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말로써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포함해 철거민을 6명이나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하였으며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모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범국민대책위 관계자 9명에 대해 근거도 없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국민의 저항을 잠재우려는 기만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자!

용산 참사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 1% 부자들을 위한 폭력집단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죽음을 부르는 뉴타운-재개발 활성화를 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답니다. 삼성물산 등 건설재벌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벌인 개발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임이 분명한데도 돈에 눈 먼 건설재벌은 정부의 지원 하에 개발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용산 참사의 불씨가 전국 곳곳에서 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피로 점철된 저들의 포크레인과 곤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학살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슬픔 속에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저들의 서민 죽이기 정책을 시도하는 모든 시간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2월 28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과 MB 악법저지를 위한 10만 범국민대회로 모입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중단시키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거리에 넘실대는 민중의 성난 함성뿐입니다.

추악한 여론 조작!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 며 처참한 연쇄살인 사건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이명박 정부. 처음에는 경찰청, 총리, 청와대 모두 한목소리로 펄쩍뛰며 사실 무근이고 이메일이나 전화도 없었다고 발뺌을 하였다. 한 술 더 떠서 한승수 총리는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라는 어설픈 스탠딩개그 작렬. 3일 내내 아니라고 우겨대더니 여론이 거세지자 '개인 아이디어를 메일로 보낸 것'이라고 마지못해 시인하고, 이성호 행정관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넘기려 했다. 추악한 여론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천인공노할 작태에 심지어 〈뉴라이트전국연합〉 마저도 참지 못하고 2월 18일 '청와대의 홍보활동이 협조를 넘어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여서는 곤란하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을 정도이다.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끝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 모르는 척 계속 침묵
이동관 대변인 : 일주일 만에 얼굴을 내밀어 '청와대 이메일 여론지침 사건은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
박희태 대표 : '국민들이 크게 관심 있는 것 같지도 않다'
홍준표 원내대표 : '사표를 냈으면 끝난 일'이라며, '더 큰 현안이 터지면 잊혀진다'

신문20090221.indd 1 2009-02-21 오전 9:28:08

아빠, 저 어제 졸업식을 했어요

“떠나지 못하게 절대 놔 주지 않을거야”

아빠, 저 어제 졸업식을 했어요. 절대 울지 말아야지 다짐만 몇 백번 했었지만 막상 졸업식을 하려 하니까 눈물을 흘려 버렸어요. 친구들은 졸업식이 끝나면 모여서 밥이라도 함께 먹자고 했지만 나는 엄마랑 상필이가 생각나서 그냥 영안실로 왔어요. 저녁 때 다른 가족들이 이성수 아저씨네 상흔이 형하고 나를 위해 졸업 파티를 열어줬어요. 진행하는 내내 엄마는 울기만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가족 모두 맛있는거 먹으러 갔었는데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엄마 때문에 저도 내내 슬펐어요.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 아빠와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큰일이에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난 머리가 나빠서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좋았던 추억만큼은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장소나 배경은 흐릿하지만 아빠의 모습은 흐리지 않아요. 지금도 또렷한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선명한데 이렇게 이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누군가가 죽음이 아니라 긴 이별이라고 말해 주면 좋을텐데 저는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빠가 밉기도 해요. 나는 괜찮지만 엄마나 상필이는 어떻게 하라고, 상필이는 아직도 여린데, 모든 것을 아빠와 함께했던 애 인데 어떻게 해요. 전철연 사람들은 상필이를 보면 다들 슬퍼해요. 아빠랑 너무 많이 닮았다하시면서요. 나는 요즘 잠이 많이 자요. 이 모든 게 꿈이어라 하구요. 잠에서 깨면 이 모든 일들이 다 꿈이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빠랑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병원 영안실에는 모처럼 친척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동안 식구도 많이 늘었어요. 경구형은 아들은 낳았는데 눈매가 형을 닮아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상석이 형은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아빠가 봤으면 참 좋아했었을텐데. 상석이 형은 아빠한테 지오를 보여주지 못한 걸 너무 속상해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지금은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 투박한 손으로 라면을 끓여주시면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는데, 정말 맛있었는데.

지금 계신 곳은 편안하신가요. 그리고 엄마랑 상필이 항상 지켜봐 주세요. 나는 언제까지나 자랑스런 아들이 될게요.

아빠,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지금은 이 마음 하나뿐이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꿈속에서라도 한번 나와줘. 나는 아빠를 있는 힘껏 끌어안고 놔 주지 않을거야. 떠나지 못하게 절대 놔 주지 않을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말할거야. ‘ 아버지 사랑합니다 ’ 라고.

2009년 2월 14일 큰아들 현구 올림.

▲ 故 윤용헌 열사의 아들 현구 군과 부인 유영숙 님이 지난 5일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이 경찰에 저지당하자 청와대 인근 건물 담벼락에 올라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고 절규하고 있다.

함께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추모대회에 참여합시다!

▶ 순천향병원 혹은 용산참사현장에 마련된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시다!

▶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부상자 치료, 유족 및 구속자 지원, 추모대회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 농협 067-02-302163 이종회, 국민 295401-01-156716 이종회